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 **금천 순이의 집**

노란 백열등이 켜진 순이의 방 안은 좁고 어둡다. 18세 순이는 화학약품 냄새와 뿌연 먼지가 가득한 작업장에서 고된 노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편히 쉴 수 없다. 사글세를 감당하기 힘든 여공들은 방 하나를 얻어 비좁은 방에서 함께 잠을 청한다. 그런데 방구석 구석에 슬픔과 희망이 어울리지 않게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글·사진 김효정

과거와 마주하는 시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금천 순이의 집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구로공단은 1970년대 정부의 수출 주도형 산업 정책에 힘입어 한국 고도성장의 심장부 역할을 했다. 봉제, 가발, 완구 등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때 국내 총수출액의 10%를 차지할 만큼 큰 성장을 이끌었다.

농촌에서 상경한 다수의 소년과 소녀들이 구로공단에 일자리를 얻으면서, 근처에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벌집촌'이라 불리던 이곳은, 좁은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제조업의 쇠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젊은 일꾼들이 떠났고, 벌집촌은 이제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지난 시절 고단했던 그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금천 순이의 집은 총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1층 기획전시관, 2층 영상관, 지하 1층 벌집 재현관, 벌집 앞마당과 가리봉상회가 있는 야외공간이다.

기획전시관에서는 구로공단의 역사와 여공들의 애환을 소개하고 있었다. 1978년 10월,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 퇴근 시간 공공연하게 실시한 여공의 몸수색과 소지품 검사 등 비인간적인 처우가 사회에 드러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유급휴일, 월차, 생리휴가, 퇴직금은 꿈도 꾸지 못한 열악했던 근로 조건, 잔업까지 해가며 한 달을 꼬박 일하고 받은 값싼 임금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여공의 모습이 그려졌다. 영화 <구로아리랑>을 통해 비춰진 여공들은 먼지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미싱을 박는다. 그들은 변비와 치질, 밤에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잘 못 자는 직업병을 안고 살아간다.

전시관 안쪽에는 '순이의 방'이 있다. 한두 평 남짓한 공간에는 작은 책상과 서랍장, 밥솥, 낡아빠진 선풍기 옆으로 오래된 비키니장이 놓여있다. 이곳에서 순이를 비롯한 여공들은 12시간의 힘겨운 노동에 지친 몸을 눕혀 잠을 청했을 것이다. 순이의 방 앞으로는 소규모의 공동 세면장도 보인다. 신경숙의 소설 <외딴방>에서는 공동 세면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들은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기 위해 줄을 서서 한참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공용 화장실은 수십 명의 사람이 사용해서 수십 분에서 한 시간 이상도 기다렸다고 한다.

노동자의 삶의 애환을 담다

영상관에는 한국경제를 이끈 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다. 오백만 불 수출의 탑 옆으로 한 손을 올리고 있는 여공의 동상을 보니, 마음 한쪽이 아렸다. 개발 시대 국가의 공식 호칭이었던 '산업역군'은 일반적으로 '공순이'로 불리면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여공들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을 인식했고, 임금 착취로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았다. 구로공단 가발공장인 서통에서 근무했던 배옥병 전 노조위원장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기적만 남고 노동자는 지워졌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계단을 내려와 벌집 재현관으로 들어서면 총 6개의 테마별 쪽방을 만나볼 수 있다.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벌집이 마주 보며 밀집된다. 아무도 없는 방인데, 누구라도 곧 퇴근해서 돌아올 것만 같았다. 전구를 켜 두었지만, 볕이 잘 들지 않는 지하라 어둡다. 두세 평이나 될까? 방 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고된 삶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진다. 그러나 이 쪽방에는 그들의 애환뿐만 아니라, 희망도 담겨 있다. 방은 주제에 맞게 어울리는 소품이 다양하게 놓여있다.

1970~1980년대 여가 문화를 재현한 패션방에서는 그 시대 유행했던 패션과 액세서리 등을 전시해 두었다. 문화방은 통기타와 노래 테이프, 시집, 한국가요대전집 등 노동자의 문화 활동을 재현했다. 공부방은 교복과 책가방, 교과서가 있는 단출한 방이지만, 노동자의 꿈과 미래를 그렸다. 추억방에서는 순이에게, 나에게, 부모님께 편지를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방문객들의 흔적이 한쪽 벽에 가득하게 채워졌다. 이와 함께 재봉틀과 원단으로 노동자의 취미생활을 재현한 봉제방, 노동자의 일상생활을 소개한 생활방을 체험할 수 있다.

추억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만나다

야외공간으로 나가면 가리봉상회가 있다. 1960~1980년대 추억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파는 구멍가게를 재현했다.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오래된 영화와 광고 포스터가 벽에 질서 없이 붙어 있다. 나무 선반 위로는 어린 시절 즐겨 먹었던 아폴로, 별사탕, 쫀드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종이 인형, 딱지, 뽑기도 눈에 띈다.

우리는 산업화로 일구어낸 국가의 자랑스러운 역사 뒤로,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날 구로공단 여공들은 좁은 작업 공간과 낮은 작업대에서 장시간 노동하며 좌식 노동을 강요당했다.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구조라지만, 인간의 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다. 무릎을 꿇고 앉아 12시간 이상 기계를 조립했고, 봉제공장 여공은 바닥에 앉아 재단하거나 미싱작업을 했다. 거기에 가발이나 완구 생산 노동자도 세밀한 손작업이 많아 바닥에 앉아 일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일을 마치고 나면, 온몸이 으스러질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그래도 그들은 내일을 위해 다시 작업복을 입고, 굳은 무릎을 펴며 또 하루를 버텼다.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노동은 한국의 지반이 되었다. 지금도 우리는 순이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보통의 노동자다. 우리가 흘린 땀은 또 어떤 미래를 맞이하는 자양분이 될까.

info.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금천 순이의 집

관람시간
월요일~토요일, 10:00~17:00
(입장마감 16:30)

휴관일
매주 일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위치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44길
17(가산동)

문의
02-830-8426